No. 27 시장 이슈·시황 읽는 시간 23분

국채금리 5%대인데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빠지는 이유, 앤트로픽 상장·현금 선호·AI 버블 중 무엇일까?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5.15%인데도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빠졌습니다. 앤트로픽 상장 자금 마련, 불확실성에 현금 선호, AI 버블 이탈, 금리·달러 충격 네 가지 설명을 각각 맞다면 보여야 할 숫자로 시험하고, 2026년 11월 17일 아침 기준으로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10년물 상승 29bp 중 28bp가 실질금리였고 달러는 52주 고점이어서 금리·달러 충격이 가장 큰 몫으로 보임. 앤트로픽 상장 자금은 방향은 맞지만 크기와 시차에서 의문이 남는 보조 요인이고, AI 버블 완전 이탈은 증거가 약함

확인할 숫자

10년 실질금리(2.91%), 2년물과 기준금리 차이(1.00%p), 달러 광의 지수(122.65), VIX(19.30), 앤트로픽 공모가 범위(70~78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주간 순유출(12.8억 달러)



사진: 푸른 하늘 아래 미국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 bettrichard873, Flickr.

목차

1. 국채금리는 정말 더 오르지 않고 있을까?
2. 금과 비트코인이 빠진 한 주에 주식은 올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3. 네 가지 설명을 어떤 기준으로 시험할까?
4. 금리·달러 충격이 가장 큰 몫일까?
5. 불확실성에 현금을 쥐는 것이라면 왜 국채가 팔리고 VIX는 낮을까?
6. 앤트로픽 상장 자금은 얼마나 큰 힘일까?
7. AI 버블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중일까?
8. 일곱 가지 사실은 네 가설 가운데 어느 쪽과 가장 잘 맞을까?
9. 앞으로 무엇을 보면 가설이 가려지는가?
10.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빠진 이유, 일곱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면?

>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한국 시간) 아침까지의 공개 자료로 쓴 정보 글입니다. 이 블로그의 분석은 AI(Claude)의 도움으로 작성되며, Claude를 만든 앤트로픽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기도 하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감안해 읽어 주세요. 앤트로픽 관련 사실은 공시·보도 기준이고 내부 정보는 없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 시점이나 가격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며, 「직접 계산」은 이 글이 자료의 숫자로 계산한 값입니다.

11월 17일 아침, 국채금리는 5%대인데 비트코인과 금이 함께 내려갔다는 소식에 계좌를 열어 본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 온 질문은 이렇습니다. 앤트로픽 상장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인지, 불확실성 장세에 현금을 쥐는 것인지, 아니면 AI 버블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인지 묻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 설명 가운데 무엇이 맞을까요? 이 글은 네 번째 후보인 금리·달러 충격을 더해, 각 설명이 맞다면 어떤 숫자가 보여야 하는지를 먼저 적고 실제 숫자와 맞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17일 장 마감 후), 앤트로픽 공모가 확정(18일 예정), 상장(19일 예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01

국채금리는 정말 더 오르지 않고 있을까?

질문의 전제부터 숫자로 확인합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10월 5일 5.31%로 52주 최고를 찍었고, 11월 5일 4.84%까지 내렸다가, 11월 13일 5.15%로 마감했습니다. 11월 6일의 4.86%와 견주면 일주일 새 0.29%p, 곧 29bp(베이시스포인트, 0.01%p 단위)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기보다 「정점 아래에서 다시 튀어 오른 상태」에 가깝습니다. 2년 국채금리는 같은 일주일에 4.51%에서 4.88%로 37bp 올라, 52주 최고인 4.92%(9월 28일)에 0.04%p 차이까지 다가갔습니다(직접 계산). 30년 금리는 5.47%로 최고치 5.67%(10월 7일)보다 아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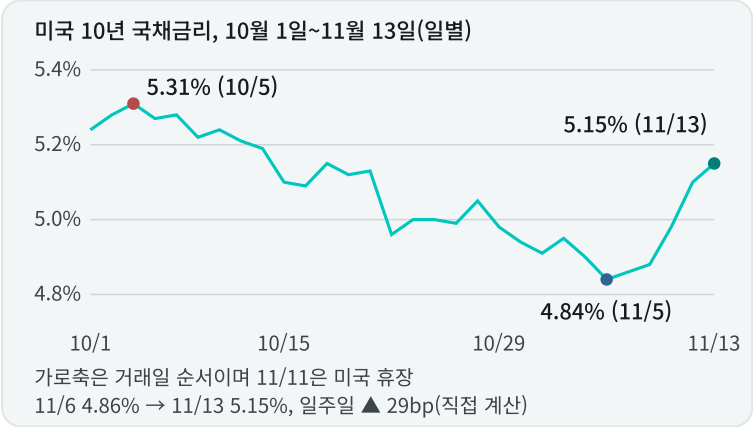


그림 1. 정점(10/5)에서 내려왔다가 일주일 새 다시 올라온 모양임. 출처는 FRED(세인트루이스 연은) DGS10.

이 차이는 해석을 바꿉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자산이 빠진다」가 아니라 「금리가 이번 주에 가파르게 올랐고 자산이 빠졌다」라면, 금과 비트코인이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이 먼저 떠오릅니다. 다만 첫인상일 뿐이므로 아래에서 하나씩 시험하겠습니다.

자료 기준일도 밝힙니다. 금리와 주가지수는 11월 13일(금) 종가, 비트코인은 15일(일) 값까지입니다. 11일은 미국 휴장이었습니다. 16일(월) 나스닥은 AP 보도 숫자만 있고, 그날 금리·금·달러 종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02

금과 비트코인이 빠진 한 주에 주식은 올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먼저 무엇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같은 눈금으로 봅니다. 금 현물은 11월 13일 약 3,885달러(보도마다 3,874~3,885달러)로, 한 주에 약 4,070달러에서 4.57% 내렸습니다. 일부 보도는 5.0%로 전했고, 1년여 만의 저점입니다. 목요일(12일) 하루에만 3% 내렸고, BullionVault는 12주 동안 15% 내렸다고 제목에 썼습니다. 은은 올해 최저입니다.

비트코인(Coinbase)은 11월 6일 75,860.14달러에서 13일 68,178.05달러로 10.1% 내렸고, 토요일인 14일에는 62,890.64달러까지 밀렸습니다. 11월 6일보다 17.1%, 올해 최고인 1월 14일의 96,852.91달러보다 35.1% 낮습니다(모두 직접 계산).

같은 일주일에 주식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24,579.42에서 25,136.27로 2.3%, S&P500은 7,376.86에서 7,561.67로 2.5% 올랐습니다(직접 계산). VIX(변동성지수, 시장이 예상하는 주가 출렁임의 크기)는 25.64에서 19.30으로 내렸습니다. 월요일인 16일에는 나스닥이 2.5% 내려 24,509.76이 됐고 다우는 739.38포인트(1.4%) 내렸습니다(AP 보도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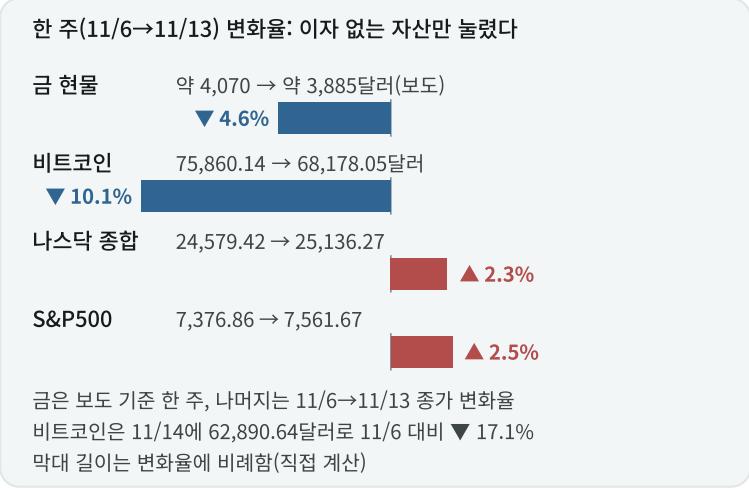


그림 2. 같은 일주일에 금·비트코인은 내리고 주식은 올랐음. 출처는 FRED, Kitco·BullionVault 보도.

그림 2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금요일까지의 숫자만 보면 모든 위험자산에서 한꺼번에 현금으로 빠져나간 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눌린 쪽은 이자를 주지 않는 금과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월요일 하락이 이 그림을 바꿀 수 있는지는 월요일 금·금리·달러 종가를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사진: 비트코인 마크를 새긴 금속 기념 열쇠고리 더미, btckeychain, Flickr.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깊게 빠졌고, 금리 말고도 겹친 사정이 있었습니다. CNBC(11월 16일)는 6주 연속 하락, 200일 이동평균(지난 200일 가격의 평균선, 약 73,000달러) 이탈, 10월 말부터 AI 평가·지출 우려로 이어진 기술주 매도, 바이낸스 63억 달러 해킹, 현물 ETF 수요 약화를 짚었습니다. The Block(11월 7일)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한 주 순유출은 12.8억 달러로 6월 이후 최대였고, 올해 누적 순유출은 9.141억 달러로 연초 이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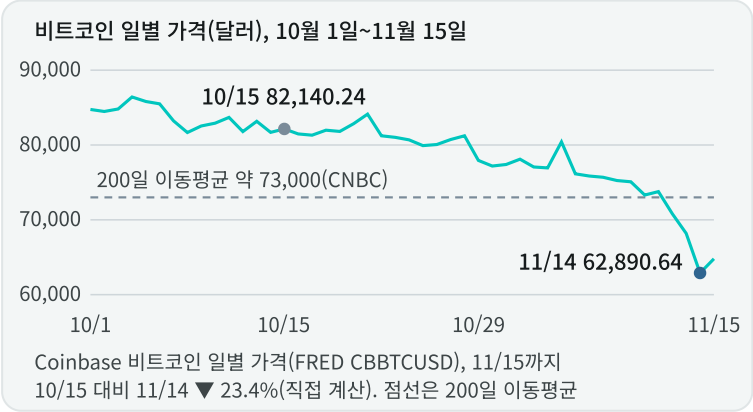


그림 3. 11월 12~14일 사흘 동안 낙폭이 컸고 200일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왔음. 출처는 FRED, CNBC.

레버리지 청산도 컸습니다. 청산은 빚을 내어 투자한 사람의 담보가 모자랄 때 강제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CoinGlass 집계로 오른다는 쪽(롱)의 청산은 목요일 약 7억, 금요일 6.29억, 토요일 1.65억 달러로 합쳐 약 14.9억 달러였습니다(직접 계산). 눈여겨볼 점은 가장 크게 내린 날이 토요일(14일, 7.8%, 직접 계산)인데 청산 금액은 셋 중 가장 작았다는 것입니다. 집계 시간대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필요], 청산만으로 마지막 낙폭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정도로만 읽겠습니다. 레버리지가 손실을 키우는 원리는 신용융자(빚투)는 수익을 두 배로 키워 줄까?에서 계산했습니다.

정리하면 풀 문제는 둘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눌린 공통 원인, 그리고 비트코인이 더 깊이 빠진 자기 사정입니다.

03

네 가지 설명을 어떤 기준으로 시험할까?

좋은 설명은 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설명이 맞다면 어떤 숫자가 보여야 하는지를 먼저 적었습니다. 같은 기준을 네 후보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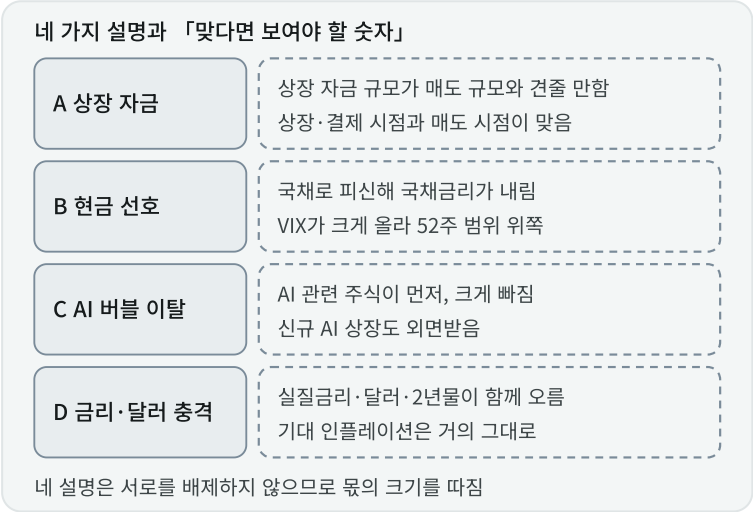


그림 4. 시험 틀. 이 글이 세운 판단 기준이며 공식 분류가 아님.

A는 앤트로픽 상장 자금 마련입니다. 상장 자금이 투자자의 매도를 부를 만큼 커야 하고, 상장·결제 시점과 매도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B는 불확실성에 현금 선호입니다. 불안한 돈은 국채로 가므로 국채금리가 내리고 VIX가 크게 올라야 합니다. C는 AI 버블에서 이탈입니다. AI 관련 주식이 먼저 크게 빠지고 신규 AI 상장도 외면받아야 합니다. D는 금리·달러 충격입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높게 나와 12월 연준 인상 기대가 커지고, 실질금리와 달러가 함께 오르며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만 눌려야 합니다.

네 설명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힘이 함께 일할 수 있으므로, 맞다 틀리다보다 몫의 크기를 따지겠습니다.

04

금리·달러 충격이 가장 큰 몫일까?

D의 출발점은 물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0.4% 올라 예상(0.3%)을 웃돌았고, 식품·에너지를 뺀 근원은 0.3% 올랐습니다. 12월 9일 연준 회의의 인상 확률은 보도마다 85%에서 사실상 100%까지(CME FedWatch 기준 84.7% 등)로 다르고, 일부는 50bp 인상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물가 발표일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2년 금리가 이 기대를 가장 먼저 보여 줍니다. 2년물은 11월 6일 4.51%에서 13일 4.88%로 올랐고, 연준 실효 기준금리는 3.88%입니다. 2년물이 기준금리보다 1.00%p 높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정책금리가 오를 것을 상당히 가격에 넣었다는 신호입니다(직접 계산). 석 달 전 기준금리는 3.63%였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10년 금리의 분해입니다. 10년 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입니다. 실질금리는 물가연동국채의 금리로 물가 상승분을 뺀 이자이고, 기대 인플레이션(breakeven)은 일반 국채와 물가연동국채의 금리 차이로 읽는 시장의 물가 전망입니다. 11월 13일 5.15%는 2.91%와 2.24%의 합이고, 11월 6일 4.86%는 2.63%와 2.23%의 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새 오른 29bp 가운데 28bp가 실질금리이고 1bp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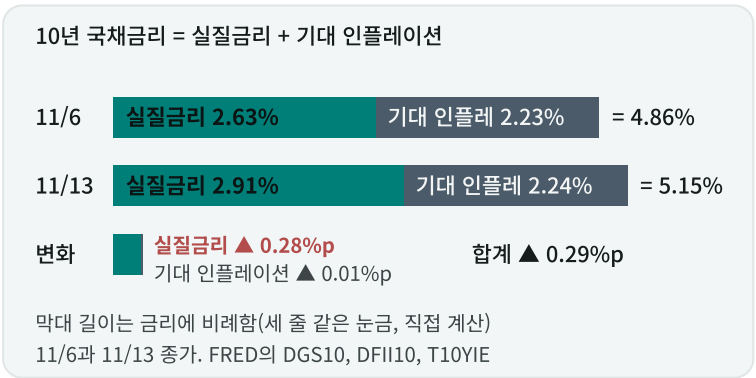


그림 5. 오른 몫이 거의 전부 실질금리임. 출처는 FRED(세인트루이스 연은).

이것이 왜 금에 중요할까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므로 실질금리가 오를수록 금을 쥐고 있는 쪽이 포기하는 이자가 커집니다. 실질금리는 12개월 전 1.83%에서 2.91%로 1.08%p(직접 계산) 올라 52주 최고 2.95%(10월 5일)에 가까워졌고, 28bp 상승은 보도 기준 2025년 4월 이후 주간 최대 폭입니다. 올해 10년물이 오른 몫도 거의 전부 실질금리였다는 점은 국채 금리 5% 시대, 미국·일본·한국 금리는 왜 함께 올랐고 무엇을 바꿀까?에서 봤습니다.



사진: 회색 바탕 위에 놓인 금괴 두 개, sprottmoney, Flickr.

달러도 같은 방향입니다. 달러 광의 지수(연준이 교역 상대국 통화 대비로 계산한 달러 가치, 2006년=100)는 11월 13일 122.65로 52주 고점이자 올해 최고입니다. 석 달 전 118.90보다 3.2%, 올해 최저 117.44(1월 29일)보다 4.4% 높습니다(직접 계산). 달러로 값을 매기는 금과 비트코인에는 달러 강세가 부담입니다.

이 설명의 약점도 적습니다. 첫째, 금은 12주 동안 15% 내렸는데 이번 주 충격은 그 마지막 한 주입니다. 실질금리의 8~9월 흐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앞부분의 하락을 같은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 필요]. 둘째, 비트코인은 금리만으로 낙폭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셋째, 2차 출처(Capwolf)는 10년물 입찰에서 해외 수요가 급감하고 큰 테일(예상보다 높은 금리에 팔림)이 났다고 하나, 원문과 날짜(11월 11일은 FRED상 휴장)를 확인하지 못해 판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그래도 이번 주 숫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설명은 D입니다.

05

불확실성에 현금을 쥐는 것이라면 왜 국채가 팔리고 VIX는 낮을까?

B가 맞다면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불안할 때 돈은 국채로 몰려 국채 값이 오르고(금리가 내리고), VIX가 치솟고, 주식이 급락합니다. 그런 날이 이번 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나스닥은 하루 5.5%(25,736.51에서 24,315.00), S&P500은 4.4% 내렸고(직접 계산), VIX는 16.61에서 28.18로 뛰었습니다. 10년 금리는 4.90%에서 4.84%로, 2년 금리는 4.58%에서 4.46%로 내렸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루에 5.3% 내렸습니다(직접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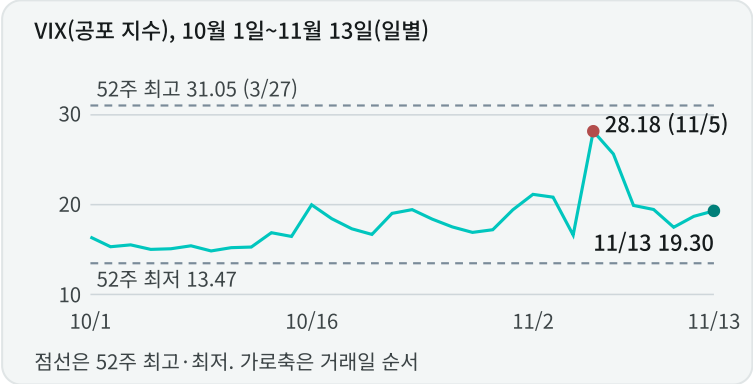


그림 6. 공포의 날(11/5)은 뚜렷했지만 이번 주 VIX는 52주 범위의 아래쪽임. 출처는 FRED VIXCLS.

이번 주는 모양이 다릅니다. 13일까지 10년 금리는 29bp 올랐고 VIX는 19.30으로 내렸습니다. 52주 범위(최저 13.47, 최고 31.05)에서 아래쪽 약 33% 지점입니다(직접 계산). 공포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안전하다는 국채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현금」을 쥔다기보다 「이자를 주는 자산이 이자 없는 자산보다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기준금리 3.88%, 2년물 4.88%이면 현금에 가까운 단기 자산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B를 모두 버리기는 이릅니다. 유동성 신호가 빠듯합니다. 연준 지급준비금(은행이 연준에 맡긴 돈)은 10월 7일 3.03조 달러에서 11월 11일 2.96조 달러로 약 700억 달러, 2.3% 줄었습니다(직접 계산). 재무부 일반계정(TGA, 재무부가 연준에 둔 현금)은 8,803억에서 9,144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재무부가 현금을 쌓으면 그만큼 시중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듭니다. 역레포(ON RRP, 금융회사가 연준에 하루 맡기는 돈)는 11월 16일 0.2십억 달러(2억 달러)로 사실상 비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줄 완충이 얇다는 신호지만, 이번 매도의 원인인지 배경인지는 이 자료로 가를 수 없습니다.

급할 때는 국채까지 포함해 팔기 쉬운 것부터 파는 현금화 변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식도 같이 빠지고 VIX도 올라야 하는데, 금요일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니마켓펀드(MMF,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잔액의 11월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이 숫자가 크게 늘었다면 B의 점수가 올라갑니다.

06

앤트로픽 상장 자금은 얼마나 큰 힘일까?

A의 크기부터 계산합니다. 보도(Fortune, 11월 10일 등)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나스닥에 ANT라는 티커로 상장을 추진하며, 공모가 희망 범위는 70~78달러, 공모 주식은 8억 2,500만 주(신주 8억 135만 1,354주, 기존 주주 매도 2,364만 8,646주)입니다. 기본 물량은 577.5억~643.5억 달러입니다(직접 계산). 여기에 구글·엔비디아 등 전략 파트너 7곳이 공모가에 비의결권주 260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합의해, 합치면 837.5억~903.5억 달러입니다(직접 계산).

일정은 11월 10일 로드쇼(투자자 설명회) 시작, 11월 18일 공모가 확정, 11월 19일 상장 예정입니다(보도 기준). 완전희석(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까지 모두 주식이 된다고 가정) 기준 가치는 최대 약 1.4조 달러로 보도됐고, 발행주식 기준으로는 약 9,170억~1.02조 달러로 계산한 보도도 있습니다. 연환산 매출은 10월 말 약 810억 달러로 9월 말 약 710억 달러보다 14.1% 많습니다(직접 계산).

이 크기는 하락을 설명하기에 충분할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간 순유출 12.8억 달러는 상장 자금의 약 1.4~1.5%입니다(직접 계산). 상장 자금이 이만큼의 매도를 부를 수는 있다는 뜻이지만, ETF는 비트코인 거래의 일부일 뿐입니다. 반대로 상장 자금 최대치는 나스닥이 하루에 지운 시가총액 약 2.5조 달러(Fortune 보도)의 약 3.4~3.6%입니다(직접 계산). 다만 시가총액 감소는 돈이 빠진 양이 아니라 가격이 내린 만큼의 평가액이어서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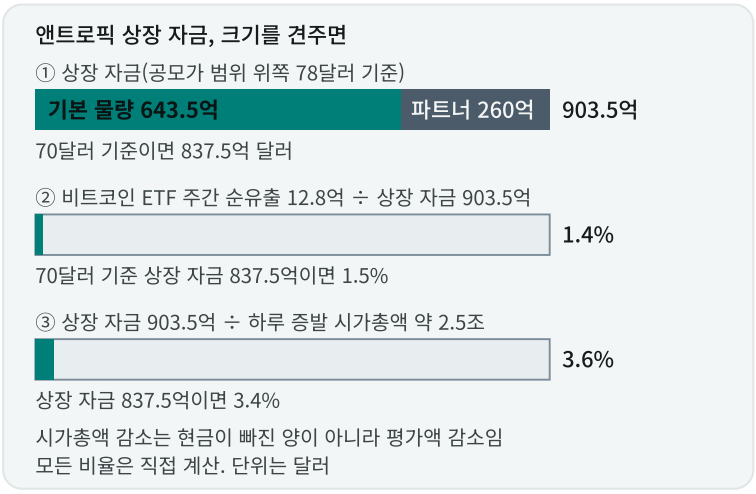


그림 7. 상장 자금은 ETF 유출보다 크고 하루 시가총액 증발보다 작음. 출처는 Fortune, The Block 보도, 직접 계산.

시차도 봐야 합니다. 금은 12주 동안, 비트코인은 6주 연속 내렸습니다. 앤트로픽이 S-1(상장 신고서)을 공개한 것은 10월 26일, 로드쇼는 11월 10일입니다. 하락의 앞부분은 이 일정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CNBC(11월 16일)는 상장 시도 자체가 투자자 자금을 위험자산에서 끌어간다는 견해를 소개하며 선매도 압력의 가능성을 말했고, 패시브(지수) 펀드의 매수 규모가 약 190억 달러라는 추정(Intropic 추정, Reuters 인용, Benzinga 재인용)도 있습니다 [확인 필요].

초과청약이 6~7배라는 보도(2차 출처 인용 [확인 필요])도 있습니다. 초과청약은 배정 물량보다 신청이 몇 배 많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 글의 추론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배정받지 못할 몫까지 현금을 미리 마련했다가, 배정 결과가 나오면 남는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 사이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팔기 쉬운 자산을 팔았다면, 배정과 결제 뒤에 돈이 풀리며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직후에도 금리·달러가 그대로인데 금과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A의 몫은 작다고 봐야 합니다. 결제일과 배정 구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07

AI 버블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중일까?

C의 출발점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종합은 10월 6일 고점 27,599.89에서 11월 16일 24,509.76으로 11.2% 내렸습니다(직접 계산). 고점 대비 10% 이상 내린 구간을 조정이라 부릅니다. S&P500은 13일 기준 고점(7,818.93, 10월 6일)보다 3.3% 낮습니다(직접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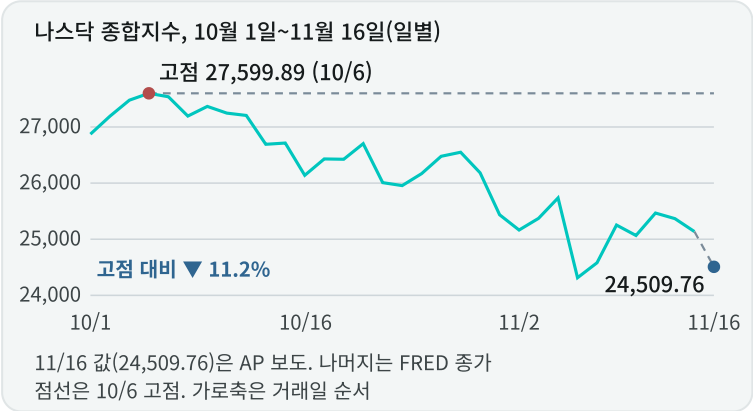


그림 8. 고점 대비 11.2% 낮은 조정 구간임. 출처는 FRED NASDAQCOM, AP 보도.

AI 쪽 악재도 겹쳤습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AI 규제와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 우려가 커졌고, 엔비디아 이사회가 CEO 관련 보도로 독립 조사를 시작했으며(11월 9일 보도) CEO 교체(임시 CEO 지정) 공시가 나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경과는 출처마다 표현이 달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16일 엔비디아는 보도마다 2.4~4.1% 내렸고, 인텔·마이크론·마벨·ARM은 6% 이상 내렸습니다(AP). 데이터센터 투자 빚에 대한 연준의 평가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AI 빚 6,800억 달러와 장부 밖 3조 달러는 무엇일까?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AI 쪽의 새 자금 수요는 강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최대 1.4조 달러(완전희석) 가치로 상장을 추진하고, 연환산 매출은 한 달 새 14.1% 늘었으며, 초과청약은 6~7배로 보도됐고(2차 출처 [확인 필요]), 7개 전략 파트너가 260억 달러 매수에 합의했습니다. 11월 6일~13일에는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AI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장이라면 신규 AI 상장이 이만큼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남는 가능성은 이탈이 아니라 재배분입니다. 이미 상장된 AI 인프라주를 팔고 비상장·신규 상장 AI로 옮기는 흐름입니다. Motley Fool(6월 30일, 의견 기사)은 SpaceX 상장 때 헤지펀드가 고평가된 반도체·AI 인프라주를 팔아 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앤트로픽·오픈AI 상장도 같은 패턴일 수 있으나 40%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기술주 안의 순환이 더 가능성 높다고 결론 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견이고 이번에도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SpaceX는 6월 나스닥(SPCX)에 상장했고 공모 희망 가치는 약 1.75조 달러로 보도됐으며, 오픈AI는 아직 공모 주식을 팔지 않았고 사모 가치는 1.25조 달러입니다(Quartz/Reuters).

그래서 C는 「조정」은 맞고 「완전한 이탈」은 증거가 약합니다. 이 글은 두 말을 구분합니다.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함께 눌린 부분(CNBC)은 연결 고리로 남습니다.

08

일곱 가지 사실은 네 가설 가운데 어느 쪽과 가장 잘 맞을까?

지금까지의 시험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칸의 평가는 측정값이 아니라 이 글의 판단입니다. 「무관」은 그 가설이 그 사실에 대해 예측하는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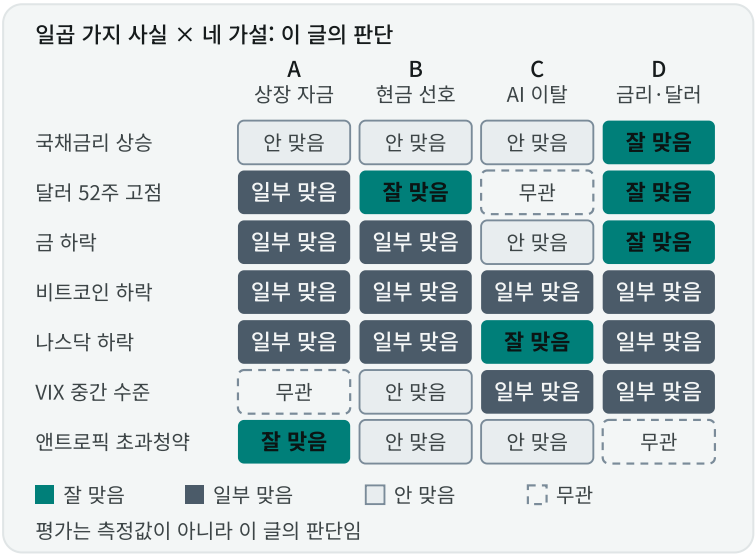


그림 9. 가설×사실 대응표. 초과청약은 2차 출처 보도라 [확인 필요].

세로로 읽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D는 금리·달러·금 세 칸이 잘 맞고 어긋나는 칸이 없습니다. C는 나스닥 하락 하나만 잘 맞고 금리·금·초과청약과 어긋납니다. B는 달러만 잘 맞고 국채금리·VIX·초과청약과 어긋납니다. A는 국채금리 한 칸만 어긋나고 대부분 「일부 맞음」인데, 이는 대체로 어긋나지 않는 대신 어느 사실도 혼자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금리와 달러 같은 큰 변화는 A로 설명되지 않고, 초과청약만 A와 가장 잘 맞습니다.

네 가설이 모두 같은 자료를 보고 채점했으므로 이 표는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점검표입니다. 새 숫자가 나오면 칸이 바뀔 수 있습니다.

09

앞으로 무엇을 보면 가설이 가려지는가?

결과가 나올 일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아래 일정은 보도 기준 예정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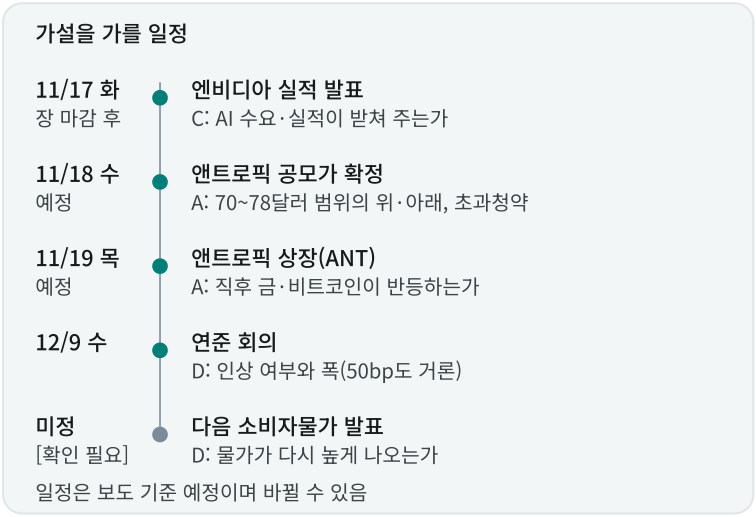


그림 10. 가설별 시험 일정. 11/17 실적과 11/18·19 일정은 이 글을 쓴 시점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 **11월 17일(화) 장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AI 수요가 받쳐 주는지 보는 자리로 C의 시험입니다. 결과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11월 18일(수) 공모가 확정, 19일(목) 상장(모두 예정).** 공모가가 70~78달러 범위의 위인지 아래인지, 초과청약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A의 시험입니다.
- **상장·결제 직후 며칠.** 실질금리와 달러가 그대로인데 금과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A를 지지합니다. 금리·달러가 내리는데도 반등하지 못하면 D가 약해집니다.
- **12월 9일(수) 연준 회의와 다음 소비자물가 발표.** 인상 여부와 폭, 물가가 다시 높게 나오는지가 D의 시험입니다. 소비자물가 발표일은 [확인 필요: 날짜]입니다.
- **상시 확인.** 10년 실질금리가 52주 최고 2.95%를 넘는지, 달러 지수가 122.65 위에 머무는지, VIX가 52주 최고 31.05 쪽으로 가는지(B)를 봅니다. MMF 잔액과 금 ETF 자금 유출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조합으로 읽으면 더 선명합니다. 금리가 내리고 VIX가 치솟으면 B 쪽, 엔비디아 실적 뒤 AI 주식이 크게 빠지고 앤트로픽 상장도 부진하면 C 쪽, 금리·달러가 그대로인 채 금과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A 쪽입니다.

10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빠진 이유, 일곱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일곱 가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뉴스에서 「~ 때문에 빠졌다」는 한 줄을 볼 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11. 네 가설의 판단 요약. 근거가 약한 대목은 본문에 [확인 필요]로 표시함.

1. **"국채금리는 정말 더 오르지 않나?"**

   → 이번 주에 29bp(4.86%에서 5.15%) 올라, 정점(5.31%) 아래에서 다시 튀어 오른 상태입니다.

2. **"가장 설명력이 큰 것은 무엇인가?"**

   → 금리·달러 충격입니다. 10년물 상승 29bp 중 28bp가 실질금리였고 달러는 52주 고점이었습니다. 다만 금의 12주 하락 전체를 설명한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3. **"현금 선호(안전자산 도피)인가?"**

   → 일부만 맞습니다. 국채가 팔렸고 VIX는 19.30으로 공포 수준이 아니지만, 지급준비금 감소와 역레포 소진은 유동성이 빠듯하다는 신호입니다.

4. **"앤트로픽 상장 자금 때문인가?"**

   → 보조 요인으로 봅니다. 자금은 837.5억~903.5억 달러로 방향은 맞지만 크기와 시차에서 의문이 남고, 상장·결제 직후의 반등이 시험대입니다.

5. **"AI 버블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인가?"**
   → 증거가 약합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1.2% 조정이지만, 같은 시기 앤트로픽은 초과청약 보도와 260억 달러 매수 합의를 얻었습니다.

6. **"비트코인은 왜 금보다 더 빠졌나?"**
   → 금리·달러에 레버리지 청산(약 14.9억 달러), 200일 이동평균 이탈, 해킹, ETF 수요 약화가 겹쳤습니다.

7. **"내 계좌에서는 무엇을 점검할까?"**
   →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 금리·달러에 얼마나 민감한가, 빚을 낸 투자(레버리지)가 있는가, 현금 비중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처럼 금리가 5%대인데도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빠진 것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금리가 이번 주에 빠르게 올라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를 주는 자산의 몫이 커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주에는 이자 없는 자산이 눌립니다. 앤트로픽 상장과 AI 조정은 그 위에 얹힌 변수이고, 비트코인에는 청산이 더해졌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앤트로픽 상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의 판단은 결과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며, 어떤 자산을 사거나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분석은 AI(Claude)의 도움으로 작성되며, Claude를 만든 앤트로픽이 분석 대상이기도 하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감안해 읽어 주세요.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FRED(세인트루이스 연은): https://fred.stlouisfed.org/series/DGS10 (DGS2, DFII10, T10YIE, DFF, DTWEXBGS, CBBTCUSD, NASDAQCOM, SP500, VIXCLS, WRESBAL, WTREGEN, RRPONTSYD도 같은 방식 주소). 금리·주가지수 마지막 관측일 11/13, 비트코인 11/15
- Fortune, 2026-11-10, Anthropic sets IPO range…: https://fortune.com/2026/11/10/anthropic-ipo-price-range-ai-stock-sell-off/
- CNBC, 2026-11-16, Bitcoin slides to $62,000…: https://www.cnbc.com/2026/11/16/bitcoin-slides-to-62000-following-liquidation-cascade-then-rebounds-slightly.html
- The Block, 2026-11-07, Bitcoin ETFs flip negative for 2026…: https://theblock.co/news/markets/2026-11-07-bitcoin-etfs-flip-negative-for-2026-after-1-28-billion-outflow-week-worst-since-june-435984
- Kitco, 2026-11-13, Rate hike bets keep gold on track for its worst week in four months: https://www.kitco.com/news/off-the-wire/2026-11-13/rate-hike-bets-keep-gold-track-its-worst-week-four-months
- BullionVault, Gold Sinks 15% in 12 Weeks: https://www.bullionvault.com/gold-news/gold-price-news/gold-price-reasons-sell-111620261
- Motley Fool, 2026-06-30(의견 기사): https://www.fool.com/investing/2026/06/30/could-the-spacex-anthropic-and-openai-ipos-trigger/
- AP(Washington Times 전재), 2026-11-16: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6/nov/16/drops-nvidia-ai-stocks-dragging-us-market-lower/
- 소비자물가·연준 기대: https://www.investmentnews.com/equities/october-cpi-comes-in-hot-raising-odds-of-a-bigger-than-expected-rate-hike/268961
- 직접 계산한 값: 10년·2년 금리 변화(bp), 비트코인·나스닥·S&P500 변화율, 52주 범위 내 VIX 위치(약 33%), 지급준비금 변화, 달러 지수 변화율, 상장 자금(577.5억~643.5억 + 260억 = 837.5억~903.5억 달러), ETF 유출과 시가총액 증발 대비 비율, 연환산 매출 증가율(14.1%), 청산 합계(약 14.9억 달러). 그림 4·10·11과 그림 9의 평가는 이 글의 판단
- Fortune의 「11/2~11/6 주간 나스닥 5.5% 하락」은 FRED 종가로 계산하면 11/5 하루 낙폭(5.5%)과 같고 10/30 종가 대비 11/6 종가의 주간 낙폭은 3.4%임. 기준 차이로 보이며 [확인 필요]
- 2차 출처 또는 원문 미확인: 초과청약 6~7배, 패시브 펀드 매수 약 190억 달러(Intropic 추정, Reuters 인용, Benzinga), 10년물 입찰 해외 수요 급감(Capwolf), 엔비디아 CEO 교체 공시 원문과 시가총액 감소 약 7,350억 달러. 엔비디아 관련은 이사회의 독립 조사 개시와 임시 CEO 지정 공시 보도 수준의 사실만 적었음
- 확인하지 못한 것: MMF 잔액의 11월 변화, 금 ETF 자금 유출입, 11/16 국채금리·금·달러 종가, 앤트로픽 상장 자금의 결제일과 배정 구조, 소비자물가 발표일
- 초과청약 후 되돌림 가능성과 「상장 직후 금·비트코인이 매크로 변화 없이 반등하면 A 지지」는 이 글의 추론이며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님

분류·태그 시장 이슈·시황 #AI #국채 #금 #금리 #달러 #비트코인 #실질금리 #앤트로픽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7-yields-gold-bitcoin-ipo.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